

2017년 5월 14일, 구좌읍 세화리 세화리노인회관, 이현정 조사.

제보자1: 김옥자(여, 1932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제보자2: 김상선(여, 1933년생, 구좌읍 세화리)

- 줄거리: 제보자의 친정어머니는 등치도 좋고 기운도 센 사람이었다. 하루는 보리밭에 일꾼들을 시키다 남은 보리들을 밤중에 가지러 갔는데, 뒷골동산을 넘어올 적에 도깨비불이 나타나 제보자의 친정어머니를 홀리려 하였다. 그러나 워낙 기운이 센 사람이었는지라 이에 홀리지 않고 오히려 이 도깨비불을 등잔 삼아, 남아 있는 보릿단을 전부 집으로 잘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이다.

[제보자1] 아. 옛날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옛날은 밭디 보리를 많이 갈았어. 보리를 많이 가난 뒷골이엔 헌 밭디 나가 물에거 허면서 밭을 한 오백 평짜리 상 놔두난, 거길 보리 간디. 이제 구루마 빌어가지고 보리를 싣거 오다가 남앗다는 거라.

어둡으니까 남헌티 다시 실으래 가지도 못하고 즈낙 먹영 그 사람은 보내된. 우리 어머니는 이제 “에염에 뭇 안 남앗이믄 두어 번 강 지어오민 짐으로 지영, 지어오민 뉘주.” 헤그네 이젠, 간 세어보나네 뭇 두 번이랑 말앙 뭇 밤 세난 지어야 뉘것더라, 무신 나만. 게난 그걸 지영 오는디, 옛날은 도체비를 많이 낫어, 도체비, 도체비를.

경 헌디 그 뒷골 동산이 좀 높으잖아. 좀 높으니까 거기서 베로 지영 오는디, 이노무 도체비덜이 우리 어무니 앞이 그냥 막 길을 가르쳐서 막 집까지 왔다가, 갔다가 우리 어머니를 홀려갈라고 어디.

게난 우리 어머니는 춤이 사람덜토 다 알주만은, 여자라도 막 등치도 크고 성주가 썬 어른이니까. 우리 어머니는 어디 나쁜 더레 심어다가 들이치진 못헌 생이라. 그 보리 다 지어올 때까지 이노무 도체비가 우리 어머니허곡 불 켜줘서 우리 어무니가 보리를, 그 보리를 밤새 낵 헨 지어왔어. 그런 일도 잊어났어요, 옛날에는.

[조사자] 아, 뒷골동산이엔 헌 데는 어디마씨?

[제보자1] 으디 저 충혼묘지 가는 디, 충혼묘지 가당 보민 손 왼쪽으로 거기가 뒷골동산이라고 헌 딘디. 이제는 길 빠면서 다 뭐 헤불엇어.

[조사자] 길 빠니까 예전에 길 안 나고 어둑어둑 허고 길 눈 안 밝을 때 그런 때만 나오는 모양이로구나예?

[제보자2] 응. 옛날에는 어둑헿 둘도 엇곡 비 왔직헿 어둑헌 때.

[제보자1] 가로등도 엇곡 경 헌 때나, 경 헌 때는 그 도체비가 많이 나.

[제보자2] 옛날은이 초를 들렁 영 좇앙 덩겻주게, 제사 먹으레 강 오명도 거 초롱불 들렁 덩겨낫어.

- 핵심어 : 도체비, 밧, 보리, 밤, 뒷골동산, 불, 기십, 여자, 도깨비, 초롱불